

제 9 장 전쟁을 평화로 (왕하 6:8~23)

I.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공격함(6:8~14): 전쟁

1. 배경(8~10)

- 1)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(8):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
- 2)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의 매복 장소告知(9,10): 아람의 계략 여러 번 실패

2. 아람 왕의 어전회의(11~13)

- 1) 아람 왕의 마음 불안(11):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가?
- 2) 신복 중의 한 사람(12):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는 가장 깊은 비밀도 알 수 있음
- 3) 아람 왕의 결정(13):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(당시 엘리사 도단에 有)

3. 아람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포위(14)

II. 아람 군대의 패배(6:15~23): 평화

1. 사환의 반응(15)

- 1)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포위
- 2) 두려움과 절망: “아아,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합니까?”

2. 하나님의 사람의 반응(16~19): 장소는 도단 성

- 1) 권면(16): “두려워하지 말라.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다.”
- 2) 기도 1(17): 사환을 위해
 - a. “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.”
 - b. 여호와께서 그의 눈을 여심: 그가 보니 불 말과 불 병거(여호와와의 顯現) 산에 가득, 엘리사를 둘러쌌음(엘리사를 보호)
- 3) 기도 2(18): 아람 사람을 위해. “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.” 그의 말대로 이루어짐
- 4)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로 인도(19)

3. 아람 군대를 돌려보냄(20~23): 장소는 사마리아

- 1) 기도 3(20): 아람 사람을 위해. “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”
- 2) 이스라엘 왕의 잔인한 제안(21): 내 아버지여, 내가 그들을 칠까요?
- 3) 엘리사의 관대한 제안(22,23a): 당시 전쟁 포로는 죽이거나 노예로 삼음.

그러나 선지자는 적에게 왕의 음식 대접하고(“떡과 물”), 그들의 왕에게 돌려보내도록 권면

- 4) 결과(23b): “이로부터 아람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함” **일시적 평화.**